



불의 홍수

©아셰르 인트레이터, 2000 년 7 월

신약을 보면, 예수아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 상에 커다란 불의 홍수가 있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눅 17 장과 벤후 3 장 등 많은 곳에 나타납니다.

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친구 및 친척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, 그 발상이 뭔가 이질적이고 “기독교적”이거나 이방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은 심판의 날과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, 타나흐 (구약)에서 이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. 사실, 하늘에서 죄인의 심판을 위한 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타나흐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. **창 19** -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를 인해 그 땅을 멸하시려 하늘에서 불을 비처럼 내리심 **레 10** -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를 멸하시려 불을 보내심 **민 16** -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으신 사자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한 고라 진영을 멸하시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 **왕하 1** -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선지자 엘리야를 체포하려 온 군사들을 멸하시려 불을 내리심. 또한 요엘, 아모스, 말라기 등 예언서 많은 곳에 불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. **속 14 장**에는 전쟁 중 불의 장면이 있습니다. 욥기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. 이 불은 실상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데, 그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.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때의 홍수가 어떤 규모와 범위로 일어날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. 소돔의 불은 그 일이 어떠한 성질과 강도로 일어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. 노아의 홍수와 소돔의 유향을 합쳐 보면, 심판의 무서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**구원**을 주시는 것입니다.